

2026년 5월 홍콩관광시장 리포트

PART 1 관광통계

□ '26년 5월 관광통계 분석 및 '26년 6월 전망

- 5월 초 대학교 학사일정 종료, 노동절(5.1.), 석가탄신일(5.25.) 공휴일 영향으로 수요 증가
- 유류세 증가로 인한 영향이 본격화 되면서 단체·FIT 모두 판매 부진, 단거리 및 중국 본토 수요 증가

□ 방한 홍콩인 관광객 수

- '26년 1~3월 '19년 동기 대비 8.2% 증가, 전년 동기 대비 21.6% 증가

연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총계
2026	37,710	47,197	59,364										144,271
2025	44,278	30,270	44,030	64,591	51,363	56,109	64,224	64,860	40,879	44,671	49,635	68,239	623,149
2024	25,755	35,458	49,235	42,654	45,790	54,449	58,305	61,864	40,033	52,439	46,766	58,670	571,418
2023	26,777	16,237	27,155	38,138	28,617	31,874	39,527	43,031	30,424	41,375	38,052	42,777	403,984
2019	35,896	51,312	46,068	76,104	57,026	61,728	59,036	65,958	45,911	65,544	58,600	71,751	694,934

* (출처) 한국관광데이터랩 <https://datalab.visitkorea.or.kr/>

□ 방홍 한국인 관광객 수

- '26년 1~3월 '19년 동기 대비 69.8% 수준 회복, 전년 동기 대비 9.0% 감소

연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총계
2026	129,083	96,260	82,425										307,768
2025	126,739	121,523	90,102	62,155	73,233	52,364	50,770	55,884	49,789	91,979	96,160	92,918	963,616
2024	100,022	84,707	67,393	63,804	56,604	47,223	48,089	60,032	64,796	78,822	85,029	96,705	853,226
2023	6,782	14,204	19,312	21,112	25,909	25,052	29,540	34,356	42,165	48,254	62,256	74,057	402,999
2019	161,115	143,804	136,225	97,710	106,017	92,229	78,210	72,166	40,684	45,591	35,402	33,387	1,042,540

* (출처) 홍콩관광청 파트너넷 <https://partnernet.hktb.com/>

□ 홍콩인 아웃바운드 관광객 수 *항공, 페리, 철도이동 등 모두 포함

- '26년 1~3월 '19년 동기 대비 30.6% 증가, 전년 동기 대비 10.9% 증가

연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총계
2026	1,020,038	9,422,176	10,553,190										30,177,404
2025	9,665,937	7,845,160	969,168	10,500,935	9,739,974	9,450,365	9,648,151	10,308,328	8,841,501	10,161,382	10,270,382	11,418,191	117,541,995
2024	7,467,866	7,531,411	9,291,001	7,918,944	8,276,352	9,026,294	8,751,788	9,377,046	8,425,953	9,114,783	9,209,817	10,311,374	104,702,629
2023	1,657,751	3,608,113	5,326,148	6,357,321	5,743,364	6,031,857	6,810,259	7,160,569	6,309,797	6,958,609	7,447,015	8,792,558	72,203,361
2019	7,740,202	7,158,465	8,200,626	9,003,627	8,141,938	8,317,071	7,972,662	7,565,745	7,459,267	7,415,097	7,216,573	8,526,688	94,717,961

* (출처) 홍콩관광청 파트너넷 <https://partnernet.hktb.com/>

□ “항공” 이용 홍콩인 아웃바운드 관광객 수

○ ‘26년 1~3월 ‘19년 동기 대비 97.8% 회복, 전년 동기 대비 5.8% 증가

연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총계
2026	807,584	943,368	988,515										2,739,467
2025	987,169	730,359	871,688	1,176,616	936,205	950,682	1,054,326	1,081,042	790,245	959,946	919,632	1,231,000	11,688,910
2024	722,035	850,802	1,016,345	796,307	892,035	1,017,652	1,108,359	1,056,080	824,952	903,312	919,000	1,171,033	11,277,912
2023	564,915	438,491	634,760	764,369	709,969	804,488	966,249	919,504	732,974	800,701	808,093	1,053,332	9,197,845
2019	870,548	959,648	971,690	1,240,660	1,090,184	1,182,381	1,233,244	1,112,268	952,674	1,012,058	1,038,742	1,304,097	12,968,194

* (출처) 홍콩관광청 파트너넷 <https://partnernet.hktb.com/>

□ 홍콩 방문 인바운드 관광객 수

○ ‘26년 1~3월 ‘19년 동기 대비 78.5% 회복, 전년 동기 대비 17.0% 증가

연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총계
2026	4811,700	5,141,714	4,354,229										14,307,643
2025	4,742,066	3,667,671	3,818,512	3,847,934	4,078,938	3,480,979	4,390,514	5,152,837	3,292,197	4,588,515	4,189,272	4,645,397	49,894,832
2024	3,825,617	4,001,190	3,401,991	3,391,381	3,398,458	3,132,598	3,921,630	4,453,877	3,062,003	4,090,054	3,568,437	4,255,551	44,502,787
2023	498,689	1,461,969	2,454,093	2,892,256	2,828,384	2,748,488	3,588,530	4,077,746	2,771,826	3,458,778	3,288,915	3,929,986	33,999,660
2019	6,784,406	5,589,628	5,860,346	5,577,201	5,916,541	5,143,734	5,196,969	3,590,571	3,104,049	3,311,571	2,626,127	3,191,466	55,892,609

* (출처) 홍콩관광청 파트너넷 <https://partnernet.hktb.com/>

□ 경쟁국 방문 현황(‘26.1~3월)

○ 전년 동기 대비 일본 0.4% 증가, 대만 -0.8%, 태국 -4.3%, 싱가포르 -4.9%

○ ‘19년 대비 일본 28.8% 증가/ 대만 79.1%, 태국 66.6%, 싱가포르 64.9% 회복

연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총계
일본	‘26	200,048	233,900	216,300									650,288
	‘25	243,700	195,500	208,400	263,600	193,100	166,800	176,000	226,100	149,500	196,000	207,600	2,517,369
	‘24	186,300	205,900	231,400	184,500	217,500	250,600	279,100	246,600	170,200	198,800	227,062	2,683,438
	‘19	154,292	179,324	171,430	194,806	189,007	209,030	216,810	190,260	155,927	180,562	199,700	2,290,748
대만	‘26	76,023	81,833	92,887									250,743
	‘25	89,391	78,870	84,521	126,554	96,859	94,236	101,602	129,122	74,649	98,688	93,386	1,203,733
	‘24	81,020	92,848	124,375	84,543	87,241	101,696	104,642	127,837	81,089	86,715	92,567	1,198,217
	‘19	93,187	106,441	117,545	170,484	128,377	137,074	151,395	164,668	106,150	116,971	129,635	1,598,223
태국	‘26	40,346	55,659	47,371									143,376
	‘25	69,047	43,411	37,395	52,965	41,826	51,345	66,823	72,802	40,295	50,513	51,004	643,158
	‘24	47,831	67,278	78,463	59,401	64,981	81,602	97,896	107,831	59,891	62,126	66,244	876,076
	‘19	60,464	80,543	74,295	88,945	84,897	102,546	108,027	121,806	77,951	74,740	78,574	1,045,198
싱가포르	‘26	19,420	22,100	25,500									67,020
	‘25	25,870	21,230	23,380	34,550	32,810	27,750	38,200	38,780	22,470	26,180	25,070	337,650
	‘24	23,420	26,510	35,790	24,040	23,830	23,830	33,770	35,680	26,610	25,200	24,540	329,330
	‘19	30,056	38,921	34,355	52,203	36,424	36,216	50,806	52,767	35,348	36,059	40,381	488,482

* (출처) 각국 관광청. 일부 통계는 확정치 통계가 아닌 추정치 통계임.

□ **홍콩 1분기 경제성장률 5.9% 기록, 5년 만에 최대폭 성장**

- 홍콩 정부가 발표한 2026년 1분기 국내총생산(GDP) 추정치에 따르면, 홍콩 경제는 전년 동기 대비 5.9% 성장하며 지난 2021년 2분기 7.6% 이후 약 5년 만에 가장 강력한 성장세를 기록함
- 이번 성장은 당초 시장 예상치였던 3.5%를 크게 상회하는 수치로, 직전 분기인 2025년 4분기 성장률(4.0%)보다도 가파르게 상승하며 팬데믹 이후의 경기 회복세가 공고해졌음을 시사함
- 주요 성장 동력으로는 상품 수출의 폭발적인 반등(23.8% 증가)이 꼽히며, 특히 인공지능(AI) 관련 전자 기기에 대한 글로벌 수요 급증이 전체 수출 실적을 견인한 것으로 분석됨
- 내수 시장 또한 정부 주도의 '메가 이벤트'와 공연·컨퍼런스 등 오프라인 활동 재개에 힘입어 민간 소비 지출이 5.0% 증가하는 등 견조한 회복 흐름을 보임
- 홍콩 정부 대변인은 관광객 방문 지속과 광둥-홍콩-마카오 금융 통합 심화 등으로 향후 전망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동 지역의 긴장 등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하방 위험에는 유의해야 한다고 밝힘

<인바운드 동향>

□ 노동절 골든위크 기간 중국 본토 관광객 100만 명 이상 홍콩 방문

- 홍콩 정부 및 이민국 집계에 따르면, 이번 노동절 골든위크 기간 홍콩을 찾은 중국 본토 관광객은 전년 대비 약 10% 증가한 100만 명을 기록하며 높은 증가세를 보임
- 업계별로는 요식업계 매출이 전년 대비 20% 증가하며 활기를 띠었으나, 호텔 업계의 경우 객실 점유율은 90%를 상회했음에도 불구하고 숙박료가 하향 안정화되면서 실제 수익성은 기대치에 미치지 못함
- 특히 본토 관광객의 소비 패턴이 쇼핑 위주에서 SNS 기반의 가성비 체험형 여행으로 변화함에 따라, 단순히 방문객 수에만 의존하기보다는 인당 지출액, 체류 일수 등을 핵심 지표로 관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음
- 현지 입법회와 경제 전문가들은 중국 본토 시장에 편중된 구조에서 벗어나, 소비력이 높은 미주·유럽 및 동남아시아 등 해외 여행객을 유치하기 위한 전략적 마케팅과 산업 업그레이드에 더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제언함
- 한편, 본토 관광객들이 도심 공공장소에서 식사를 하거나 노숙을 하는 등의 행동이 현지 SNS에서 논란이 되며 사회적 비용과 이미지 관리라는 과제를 남김

□ 홍콩 카이탁 몰, 메가 이벤트와 '티켓 경제' 시너지로 매출 40% 급증

- 작년 3월에 개장한 홍콩 카이탁 스포츠 파크(Kai Tak Sports Park)에서 개최되는 대형 콘서트와 스포츠 경기 영향으로, 인접한 카이탁 몰의 2026년 1분기 유동 인구와 매출이 연간 40% 증가하며 지역 내 소매업 호황을 일으킴
- 카이탁 몰은 이벤트 관람객을 실질적인 소비로 연결하기 위해 당일 행사 티켓 소지자에게 식음료 및 쇼핑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티켓 스텝 경제(Ticket Stub Economy)' 전략을 도입하여 단발성 방문을 다회성 소비

경험으로 전환함

- 대형 콘서트가 열리는 기간에는 관람객들의 방문이 집중되면서 신발 매장의 매출이 1/3 이상 급증하는 패턴을 보였으며, 식당가 역시 공연 전후로 손님이 몰려 평소보다 20~30% 높은 매출을 기록함에 따라 다수의 점포가 인력을 충원하고 영업시간을 연장함
- 단순 행사 지원을 넘어 대만 록밴드 오월천(Mayday)의 팝업 스토어나 인기 현지 가수(Ian Chan, Keung To)의 팬클럽 전시회 등 '팬덤 문화'를 겨냥한 몰입형 전시를 적극 유치하여 수만 명의 충성도 높은 고객을 몰안으로 유도하는 낙수 효과를 창출함
- 스포츠 이벤트와의 시너지를 위해 지난 4월 럭비 세븐스(Rugby Sevens) 기간 중 음식·음악 축제를 개최한 데 이어, 오는 7~8월 국제 축구 이벤트 시기에 맞춰 대규모 프로모션과 테마 체험을 기획하는 등 여름 휴가철 소비 모멘텀을 지속할 계획임
- 급증하는 방문객과 인근 거주 인구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일본·태국 유명 식당 브랜드를 추가 입점시키고 대형 슈퍼마켓 확장 및 국제 축구 아카데미 개설을 추진하는 등 리테일 및 레저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음

〈아웃바운드 동향〉

□ 홍콩 항공업계 5월 중순부터 유류할증료 인하 발표

- 중동의 지정학적 긴장 완화와 국제 유가 소폭 하락 따라, 캐세이퍼시픽과 홍콩익스프레스 등 주요 항공사가 오는 5월 16일부터 모든 노선의 유류할증료를 일제히 인하함
- 캐세이퍼시픽은 장거리(HK\$1,560→1,362), 중거리(HK\$725→633), 단거리(HK\$389→339)로 각각 구분하여 인하된 요금을 적용함
- 홍콩익스프레스 또한 5월 16일부터 유류할증료를 기존 대비 12.8% 인하하여, 편도당 50홍콩달러가 줄어든 HK\$339로 책정함
- 한편, 중국 본토행 항공편 유류세(HK\$165)는 인상 없이 유지하고 있어

인하 대상에서 제외되며 한국발 항공편 유류세는 6월 1일부터 약 13% 인하 예정. 단, 일본발 항공편 유류세는 11,200엔으로 유지됨

- 홍콩 항공국은 중동 분쟁에 따른 글로벌 항공업계의 타격에도 불구하고, 5월과 6월 홍콩의 항공편 취소율은 합쳐서 5% 미만이며, 여행 성수기인 7월에는 약 1%에 불과하여 공항 운영이 매우 안정적이라고 발표함
- 4월 캐세이퍼시픽 승객 수송은 전년 대비 17%가 증가했으며 홍콩익스프레스도 5%가 증가하여 항공업계는 여전히 여행수요가 견조하다고 보고 있으며 이에 따라 캐세이퍼시픽은 2026년 여객 수송 규모의 전년 대비 10% 증대 목표를 재확인함
- 항공업계는 이번 유류세 인하 및 항공사의 적극적인 공급 확대 노력이 중동발 리스크 속에서도 공항 이용객 수를 지속적으로 견인하고, 여행객들의 실질적인 경비 부담을 줄여주는 긍정적인 신호가 될 것으로 전망함
- ※ 한국 국적항공사 한-홍 노선 한국발 항공편 유류세 약 20% 인하 예정(6.1.~)

□ 홍콩 자가용 마카오 진입 쿼터 400개 신설 및 확대

- 홍콩 교통부는 강주아오 대교(HZMB)를 이용해 마카오로 입국할 수 있는 홍콩 자가용 쿼터 400개를 추가 발행하며, 기존과 달리 '개방형 범주(Open Category)'를 새롭게 도입함
- 기존에는 마카오에서 근무하거나 사업을 운영하는 등 특정 연고가 있는 '제한적 범주'에만 쿼터가 부여되었으나, 이번 신설된 400개 쿼터는 마카오 내 특별한 연고가 없어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문턱을 대폭 낮춤
- 선정된 차량은 발행일로부터 3년 동안 유효한 허가증을 통해 마카오를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으며, 신청 인원이 할당량을 초과할 경우 추첨을 통해 공정하게 선발함
- 이번 조치는 특정 비즈니스 목적 외에도 단순 관광이나 가족 방문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 시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홍콩과 마카오 간의 인적 교류를 실질적으로 대중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됨
- 홍콩 당국은 이번 개방형 쿼터 도입이 강주아오 대교의 활용도를 극대화하고, 광둥-홍콩-마카오(Greater Bay Area) 내 물적·인적 통합을 가속화하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함

□ 홍콩 국제공항 제2터미널 개장

- 홍콩 공항관리국(AAHK)은 홍콩 국제공항 제2터미널(T2) 출국 시설을 정식 가동했으며, 개장 첫날 약 4,200명의 승객이 해당 시설을 이용하며 운영이 원활하게 시작되었다고 발표함
- 새롭게 단장한 제2터미널은 기술 중심의 설계를 바탕으로 58대의 스마트 체크인 키오스크와 68대의 셀프 수하물 위탁 카운터를 갖추고 있으며, 특히 수하물 위탁 시 짐을 들어 올릴 필요가 없는 사용자 친화적 컨베이어 시스템을 도입해 편의성을 극대화함
- 공항 측은 스마트 시스템을 통해 승객들이 단 45초 만에 체크인 절차를 완료할 수 있다고 설명하며, 이번 1단계 개장을 시작으로 내년 말 전용 탑승동 및 게이트가 완공되면 연간 3,000만 명의 여객을 수용할 수 있는 허브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으로 기대함
- 홍콩항공(Hong Kong Airlines)이 T2로 이전한 첫 번째 항공사가 되었으며, 오는 6월 중순까지 총 15개 항공사가 순차적으로 제2터미널로 옮길 예정임
- 다만, 현재는 체크인 및 보안 검색 완료 후 무인자동열차(APM)를 타고 제1터미널(T1) 탑승 게이트로 이동해야 하는 '단계적 운영' 방식이 적용 중이며, 공항 측은 승객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안내 인력을 추가 배치하고 표지판을 강화하는 등 현장 지원을 지속할 방침임

※ 출처 :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 스탠다드, 블룸버그 등 현지 언론매체

홍콩정부 보도자료 <https://www.info.gov.hk/gia/general/202206/01.htm?fontSize=1>

홍콩관광청 보도자료 <https://www.discoverhongkong.com/kr/index.html>

싱가포르, 대만, 태국, 일본 NTO 발표자료

Hong Kong Census and Statistics Department

Wing On, EGL 등 홍콩 주요 여행사 모니터링 등